

보령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개최

제1차 본회의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보령시 이전' 요구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제219회 임시회를 가졌다.

회기 첫날인 18일 조성철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조성철 의원은 공군사격장 소음과 환경오염에 따른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보령시의회는 제21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보령시 이전'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 19일에는 제1차 자치운영위원회와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열고 각 소관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운영위원회는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한 모두 8건,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다뤘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심사안건을 의결하고 제21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광



보령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며, "올해 처음 시도된 대천해수욕장 야간개장이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연장시켰듯이 해수욕장 운영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